

지역 매아리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16일 개최했다.

유진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속에 제7대 정읍시의회가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대통령 국정철학과 핵심 국정목표에 맞추어 계획한 목표를 차분히 준비해줄 것과 정읍시의회도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화농민혁명 정신이 급후 헌법개정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천규 의원은 민선6기 시장결위에 따른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2018년 신규사업 추진의 의회와의 소통과 시민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 5개항목 ▲정병선 의원은 내진설계 사각지대 정읍시 지진피해 예방 대책으로 지진등 재난발생시 등록된 대피시설 32개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진한 20개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보완조치 등 5개항목 ▲이익규 의원은 농촌테마파크 건립사업 촉구를 위한 제안으로 가족사육시설 여부 문제, 환경오염 등 부전지구내 설치계획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위치 전면 재검토할 것 등 2개 항목 ▲이도형 의원은 옥정호 수면개발 저지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면서 임시회 회기중 정읍시는 민관협의체 참여중단을 선언하고 수면이용연구용역 중단요구 등 4개항목을 의회차원에서 논의 및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제229회 임시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안전심사에 이어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새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고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정발전을 위해 수립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 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의정을 강화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업인 복지 확대 힘쏟는다

부안군, 지원사업 추진에 올해 9억2600만원 투입 자녀 학자금·영농도우미·재해안전 보험료 등

부안군은 올해 농업인 복지 확대 위한 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총 9억 26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 보험료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5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총 4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손 자녀가 있는 농

업인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특히 군은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영농시기에 출산으로 일손 부족을 겪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총 45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발생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보건지소 변산지소에서 근무하는 김미경 주무관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지역주민 건강지킴이 '김미경씨' 화제

부안보건지소 변산지소 근무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안보건지소 변산지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랑방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인물은 부안군 보건소 변산지소에 근무하는 김미경(의료기술·6급)주무관이 그 주인공.

김 주무관은 지난 89년 공직에 투신한 후 민원인들을 항상 환한 미소로 친절하고 편안하게 응대하므로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어 지역민들이 언제든 쉽게 찾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랑방과 같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김 주무관은 내소하는 지역주민들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정 및 건강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스스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므로 건강증진,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자기건강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 지역 어르신들을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건강한 부안군 만들기를 위해서 65세 이상의 폐렴 무료예방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폐렴 구균 접종과 평소 폐가 안 좋아 질병으로 고생하시고 예방접종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변산면 신씨 할머니는 "김미경 주무관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 에다 위압, 간담, 자궁경부암, 대장암,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고 일대일 맞춤형 전화상담을 통한 암 검진 홍보 및 수검률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시나 의료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기다리는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성실한 근무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말안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 지역주민들이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김 주무관은 국가사회발전 유공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비롯하여 부안군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성장촉진지 개발사업 이상無

정읍시, 지역발전 촉진 기반시설·소득기반 확충

정읍시가 올해도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하 성장촉진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성장촉진 개발사업은 지역 내 관광, 역사, 문화자원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모두 20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은 구절초테마파크와 축산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개설이다.

이들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촉진지구(옛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22억원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주차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은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서남권 추모공원 확충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전라

북도 지역개발계획에 추가 지정 해줄 것을 요청, 올해 1월 전라북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연차사업비로 국비 총 125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우선 올해 철도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성장촉진 개발사업 지구는 첨단과학산업단지과 내장산리조트, 구절초테마공원 등 정읍의 주요한 관광자원과 성장동력원이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과 성장을 촉진시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후에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빠른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북면이 지역 내 40개 마을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행정 강화' 주민 목소리 귀담는다

정읍시 북면 마을순회 간담회 23일까지 40개 경로당 방문

정읍시 북면이 지역 내 40개 마을(경로당)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8일 시작된 간담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간담회는 마을 어르신들의 애로와 궁금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더불어 행정의 중요 홍보사항 등을 마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유도해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

서는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김 면장은 "지난해 1월 부임, 올해 두 번 째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마을 속인사업과 주민애로사항 등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 예산부서, 그리고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강화해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 체감 심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찰'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